

## 제8회 농업인의 날 연설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농업 지도자 여러분,

여덟번째 '농업인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잦은 비로 곡식은 물론 과수와 채소마저 작황이 극도로 부진했습니다. 여기에다 태풍 '매미'까지 불어닥쳐 주택과 농경지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쌀 한 톨, 과일 하나라도 더 거두기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농업인 여러분,

힘을 냅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조금 전 발표한 성공사례처럼 길은 찾으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시름과 노고를 한시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우리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 가겠습니다.

이미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농업 발전과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견도 수렴해서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내 모든 관련 부처가 협력해서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19조원 규모입니다. 우선 51조원을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정부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농특세 연장이나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선진국과 경쟁해서 이기는 농업, 1인당 소득이 도시근로자에 버금가는 농업인, 가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건은 경쟁력입니다.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한 첨단의 친환경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가야 하겠습니다. 규모가 있는 전업농과 친환경·고품질 농업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품질과 서비스로 우리의 시장을 지키고 수출을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고령 농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가공산업과 서비스, 유통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해서 농업의 부가가치와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산업을 키워서 농외소득 비중도 높여 가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농가소득의 3분의 2 수준으로 높여 놓겠습니다.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07년까지 농업예산의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영 안정장치를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보험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빛 문제, 교육과 의료 여건 개선도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채경감 특별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제가 직접 챙겨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밀려오는 농산물 개방의 파고 앞에서 걱정이 매우 크실 것입니다.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과 내년에 있을 쌀 시장 개방 재협상에서 우리 농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힘들지만 이겨내야 합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도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낙오되지 않으면서 농촌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체질강화와 구조조정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농업 선진화를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FTA 이행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4대 지원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되면 이러한 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굳건한 신뢰입니다.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 가는 노력입니다. 불신과 대립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입니다. 우리 서로 믿고 열심히 해 보십시오.

농촌 문제를 하루아침에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지혜와 힘을 모으면 틀림 없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도 우리 농촌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자조적인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결코 농민의 희생만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농촌 대책 없이 개방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어느 누가 농업의 혜택을 입지 않았으며, 농촌에 뿌리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업인과 정부,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이룩해 냅시다. 참여정부 들어 처음 맞는 오늘 '농업인의 날' 을 그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다시 한번 '농업인의 날' 을 축하드리며 농업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